

아우디 - 수소연료 전지

바르질라 - ESS

오토독스 - 커넥티비티

넥스트도어 - 카셰어링

# 현대자동차, 글로벌 동맹으로 미래 동력 찾는다

신성장 기술 중심 파트너십 주목  
커넥티드·자율주행 경쟁력 확보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미래 사업 동력 확보에 나선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과 잇따라 손잡으며 미래 차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달 20일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위해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독일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와 동맹을 맺었고, 이어 26일 재활용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개발하기 위해 글로벌 에너지 전문 기업 바르질라와 손잡았다.

이번달에는 지난 3일 미래차의 핵심 기술인 '커넥티비티(연결성)'를 위해 이스라엘 벤처 기업 오토독스에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 이어 4일에는 호주의 차량 공유(카셰어링) 업체 카 넥스트 도어와 손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잡고 차 키가 필요없는 P2P 카셰어링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모두 신성장 기술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현대차그룹의 방향성이 엿보인다.

이 가운데 특히 현대차와 아우디의 수

소차 동맹은 의미가 남다르다. 아우디는 폴크스바겐그룹 내에서 수소전기차 관련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이번 제휴로 현대차그룹은 폴크스바겐그룹 산하 모든 브랜드와 수소 전기차 기술 특허 및 주요 부품을 공유하게 된다. 수소전기차는 공해 배출물이 없어 기존 전기차와 같은 무공해차이지만, 외부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공기 청정 기능을 갖고 있어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린다.

현대차그룹은 ESS 제품 개발과 글로벌 사업화를 바르질라와 공동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장치로,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오토독스와 손잡고 미래형 자동차 기술의 핵심인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

차의 경쟁력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오토독스는 커넥티드 카의 두뇌 역할을 하는 통신 칩셋(반도체 직접회로)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커넥티드 카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받으며 움직인다는 점에서 '달리는 컴퓨터'로 불린다. 도로·날씨 정보 등을 취합해 자율주행에 적용한다. 이때 통신 칩셋은 차량 외부의 무선통신과 내부의 유선통신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2008년 설립된 오토독스는 V2X(차량과 사물간) 통신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와 오토독스는 차세대 커넥티드 카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셋을 공동 개발한다. 현대차는 협업 과정에 현대모비스·현대오트론 등 계열사를 참여시켜 그룹 전체의 미래기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호주 카 넥스트 도어와 함께 2020년

첨단 ICT를 활용한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2013년 호주에서 카셰어링 사업을 시작한 '카 넥스트 도어'는 개인이 개인에게 시간 단위로 차를 대여해주는 P2P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다. 차를 소유한 사람이 전용 앱에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 대를 설정해 놓으면 주변에 차가 필요한 고객을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뉴캐슬 등 호주 4대 도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 수는 6만2000명, 월 평균 대여 성사 건수는 8000건 수준이다. 현대차는 '카 넥스트 도어'와 협업해 고객의 차량과 스마트폰을 연결해 주는 '현대 오토 링크'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 소유자와 대여자 간에 차 키 전달이 필요 없는 편리한 P2P 차량 공유 환경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삼성 5G 통신장비 전세계에서 검증



러시아 최대 이동사 MTS와 협력  
유럽서 고정형 시범서비스 마쳐

삼성전자가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 한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이동통신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3일(현지시간) 러시아 최대 이동사 MTS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삼성전자의 5G 장비를 활용해 HD 화상통화와 초저지연 비디오게임, 4K UHD 고화질 비디오 스트리밍 등 5G를 활용한 실사용 사례 시연에 성공했다.

과학기술 관련 박물관인 포포프 무선통신 중앙박물관에서 이뤄진 이번 시연에서 ▲5G 라우터 ▲프로토타입 태블릿 ▲5G 무선 액세스 장치 ▲가상화된 RAN과 코어 네트워크를 포함한 다양한 삼성 솔루션이 활용됐다.

2014년 LTE 네트워크 서비스 개시와 함께 협력을 시작한 양사는 2017년 LTE-A 프로, 사물인터넷(IoT) 기능으로 MTS 네트워크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어 5G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2일(현지시간)에는 유럽 이동사 오렌지, 시스코와 함께 루마니아 제2 도시인 클루지에서 5G 기

술을 활용한 고정형 무선 액세스(FWA) 시범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클루지의 여러 가정에서 1개월 반 동안 진행된 시범서비스에서 삼성전자 실내외 5G 가정용 단말과 소형화된 5G 기지국, 네트워크 설계 서비스 등이 사용됐다. 또한 시스코 차세대 가상화 코어 제품인 시스코 울트라 게이트웨이 플랫폼 등이 추가로 이용됐다.

3개시는 이달 2~3일 업계 관계자들에게 5G 장비를 활용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와 가정용 초고속 인터넷, 지능형 CCTV 솔루션을 시연했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수 벤더의 장비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중 제품 간 호환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5G 네트워크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장점이 있다.

아르노 방파리스 오렌지 무선통신 네트워크 부문 전무는 "26㎢ 지역에서 5G 고정 무선 액세스의 첫 번째 성공적인 테스트를 마쳤다"며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5G 개발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5G 통신장비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일본 통신사 KDDI와 함께 일본 프로야구 공식 경기에서 5G 기술로 경기의 위치·장면을 자유롭게 시청하는 자유시점 영상 실시간 전송에 성공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그리스 최대 해운사의 '100번째 프로포즈'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  
대우조선해양 100번째 선박 수주

대우조선해양이 창사 이래 최초로 단일 선주로부터 100번째 선박을 수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로부터 17만3400㎡ 규모의 LNG-FSRU(액화천연가스·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 1척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LNG-FSRU는 길이 295m, 너비 46m 규모로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오는 2021년 상반기까지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안젤리쿠시스 그룹으로부터 100척의 선박을 수주하게 됐다. 금액은 약 110억 달러(약 12조원)에 달한다.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1994년 대우조선해양에 9만8000톤급 원유운반선 첫 발주한 이래 24년 동안 지속적으러 무려 100척의 선박을 발주했다. 그 중 82척이 성공적으로 인도됐으며 현재 18척의 안젤리쿠시스 그룹 선박들이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그리스에서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오른쪽)과 안젤리쿠시스 그룹 존 안젤리쿠시스 회장이 LNG-FSRU 건조 계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수주절벽 상황과 대우조선해양이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던 지난 2015년 이후에도 24척의 선박을 발주했다.

또한 정성립 사장과 존 안젤리쿠시스 회장의 인연도 조명을 받고 있다. 정 사장이 선박영업담당이었던 1994년 대우조선해양과 첫 관계가 시작됐으며, 정 사장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사장으로 따른 마지막 수주가 안젤리쿠시스

그룹의 VLCC 1척이었다. 지난 2015년 정 사장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복귀한 뒤 가장 처음으로 계약한 선박 또한 안젤리쿠시스 그룹의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2척이었다.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현재 총 22척의 선박을 세계 각 조선소에서 건조 중에 있다. 그중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인 선박은 18척으로 그 비중은 82%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안젤리쿠시스 그룹과 2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오면서 존 안젤리쿠시스 회장은 물론 그룹 경영 일선에 나선 사주 딸인 마리아 안젤리쿠시스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대를 이어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단일 선주로는 100척의 선박을 발주한 첫 고객이며, 이 외에 싱가포르 BW 65척, 덴마크 머스크 55척 등이 대우조선해양에 대량의 선박을 발주했다.

한편 이번에 수주한 LNG-FSRU는 길이 295m, 너비 46m 규모로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되어 2021년 상반기까지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정영문 기자 yw964@

## 자동문도 원격으로... '스마트 도어록' 선배

삼성SDS, 국내외 동시 출시

삼성SDS가 국내 최초로 와이파이 일체형 IoT 스마트 도어록(SHP-DR900·사진)을 국내외에 동시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SHP-DR900은 배터리 수명을 두 배 향상시킨 저전력 와이파이 칩을 내장해 실내 무선 공유기와 항상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문 열림 상태나 침입 시도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사용자는 가족이나 친척 방문 시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문을 열어줄 수 있고, 모든 출입 이력을 수시로 확인 가능하다.



문 열림 방식도 한 단계 더 발전했다. 집에서 나갈 때 도어록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과 거리를 감지해 손만 살짝 닿아도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풀리는 부드러운 문 열림을 구현했다.

특히 삼성SDS는 정보 유출과 해킹 방지 등 보안성 강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또한, 최신형 지문 센서를 적용하여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지문을 인식하는 등 편의성도 향상되었다. /구서윤 기자

## 현대차, 천안에 '글로벌 러닝센터' 개원

현대자동차가 내실 강화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현대차는 충남 천안에 최신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육시설과 학습환경을 갖춘 '글로벌 러닝센터'를 개원했다고 4일 밝혔다. 천안 글로벌 러닝센터는 기존에 서비스 기술교육을 진행했던 현대차 천안 연수원을 신축한 것으로, 대지면적 4만8790㎡(1만4759평)에 연면적 4만1484㎡(1만2549평) 규모로 지어졌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총 4개 층으로 이뤄진 교육동과 생활관으로 구성됐다.

교육동의 경우 고객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한 롤플레이 교육장, 신차에 적용된 첨단 신기술과 주요 기능을 체험하는 주행·테스트 트랙, 고급차 및 승용 서비스 기술 교육장, 상용차 특화 교육을 위한



현대차 천안 글로벌 러닝센터. /현대자동차

중대형 상용 정비 기술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췄다.

천안 글로벌 러닝센터는 국내 서비스 정비 기술교육 중심이었던 예전과 달리 국내외 판매, 상품, 고객 응대(CS), 정비 서비스 부문을 아우르는 고객 접점 종합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양성운 기자

## LG전자

가전제품 서비스 최고 평가

LG전자가 가전제품 서비스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LG전자는 4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8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서 가전제품 AS부문 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서비스품질 평가모델이다. 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후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조사해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한다.

LG전자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고객의 소리를 모니터링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제품수리 과정을 각 단계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톡톡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